

격려사

『육조단경』에 보면 5조 홍인 스님께서 6조 혜능 스님께 법을 이은 증표로 가사와 발우를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우(鉢盂)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발우는 단지 음식만을 담는 그릇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발우에 담기는 음식, 즉 사찰음식도 이와 같습니다.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단순히 배부름이나 맛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절에서 발우공양을 할 때에도 죽비 소리에 맞춰서 『소심경(小心經)』을 외면서 공양을 합니다.

『소심경』은 부처의 탄생, 성도(成道), 열반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많은 보살과 부처를 생각하고, 자연과 모든 중생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보살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시계(三匙偈)”라는 게송이 있습니다.

원단일체악 원수일체선 원공제중생 동성무상도

願斷一切惡 願修一切善 願共諸衆生 同成無上道

-서원하오니 일체의 악이 끊어지이다.

-서원하오니 일체의 선을 닦아지이다.

-원컨대 일체의 중생과 함께 위없는 도를 이루겠나이다.

이 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사찰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악을 끊고 선을 닦아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의 음식과 공양은 그 자체가 수행(修行)인 것입니다.

『사찰음식 순례-대전·충청 편』 발간을 맞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찰음식의 정신을 반드시 인식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무엇이든

그 근본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찰음식은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종단 차원에서 사찰음식조사단을 구성해 전국의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일제히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찰음식 순례-대전·충청 편』 발간이라는 성과를 내놓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찰음식 순례-대전·충청 편』은 사찰음식에 대한 첫 번째 도록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층 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보급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찰음식 연구조사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드리며, 연구조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원 문화부와 산하의 사찰음식조사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불기2554(2010)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乘